

수입·국산 약재 구별 요령

품목	항목	국내산	수입산(중국)
오미자	색깔	◦어두운 적색~흑갈색	◦비슷하다.
	모양	◦바깥면은 주름이 있고 때때로 흰가루가 묻어있다. ◦육에서 진액이 나온다	◦진액이 없다.
감	촉각	◦눅진눅진하고 끈적 끈적하다.	◦단단하다.
	향·맛	◦약간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흰분이 나타난다.
지황	색깔	◦바깥면은 황갈, 흑갈색	◦내부의 검은색이 표면에 많이 나타나 국내산보다 어둡다.
	모양	◦원주형~방추형을 이루고 길이 5~15cm 지름 6~15mm ◦때로는 꺾이였거나 변형되었다. ◦깊은 세로주름과 가로로 결뿌리의 자국과 피목이 있다.	◦몸체는 굵다.
질	질	◦질은 연하여 쉽게 꺾어진다.	◦질은 연하다.
	향·맛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처음에는 단 것같으나 후에는 좀 쓰다.	
창출	색깔	◦바깥면은 어두운회갈색~어두운황갈색	◦중국 연변지역 창출은 국내산과 같다.
	모양	◦불규칙하게 구부러진 원주형으로 길이 3~10cm 지름 10~25mm 이다. ◦횡단면은 거의 원형이고 엷은 갈색~적갈색의 분비물에 의한 가는점이 있다.	◦기타지역의 산은 국내산 백출처럼 크고, 색상이 붉고 반점이 있다.
향·맛	향·맛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맛은 약간 쓰다.	
	천마	색깔	◦바깥면은 엷은 황백색~황갈색
모양	모양	◦약간구부러지고 편압된 원주형~방추형이며, 길이 5~15cm 너비 2~5cm 두께 1~2cm ◦불규칙한 세로 주름과 돌림마디가 있다.	◦몸통이 매끈하고 크다.
	질	◦질은 단단하고 꺾으면은 황갈색~흑갈색이며, 광택이 있다. ◦각질 모양이나 때때로 속이 빈것도 있다.	

약초유래를 찾아서

구기자

보라색 작은꽃 빨간열매

구기자나무(Lycum chinese Mill)는 가지과 식물로 원산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대만 및 동남아시아에 널리 자생하는 낙엽관목으로 울타리열, 발육,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약초이다.

줄기는 1백80~2백cm 정도 옆으로 자라며 가시가 있다. 잎은 부드럽고 긴 난상피 침형이며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다. 여름에 엽액에서 작은 꽃가지가 자라 보라색의 작은꽃이 피는데 꽃이 지면 열매가 맺어 후에 빨갱게 익는다. 이 열매를 구기자라 하는데 구기의

윤이나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당뇨에도 좋아 장수하는 약으로 알려져 왔다.

구기자에 관한 일화를 보면, 어느 시골마을의 외딴 곳에 한 가구가 살고 있었다. 이 집은 그곳에서 대를 이어 몇대를 살아왔으며 아주 고령의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할머니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던지 옛날에도 어머니의 생존을 늘 짐스러워하던 늙은 아들이 어느날 마을에 내려 왔다가 알고 지내던 의원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었고 노모친의 이야기도 나오게 되었



보았다. "음, 이것이었군" 하고 생각한 의원은 "이 구기자 나무를 캐내어 보게나" 하였다. 주인은 이 말을 듣고 구기자나무를 파버렸는데 그후 얼마지나 노모는 기력이 쇠약해져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 가족은 항상 구기자나무 뿌리사이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먹고 살았으니 장수할 수 밖에...

그밖에도 구기자나무의 목은 줄기로 만든 지팡이를 선인장(仙人杖)이라 하여 이것을 짚고 다니면 장수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後漢代의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는 구기자를 상약(上藥, 120種)으로 분류하여 無毒하고 明服久服해도 상하지 않으며 경신익기(輕身益氣)하며 불노연년(不老延年)한다고 하였는데 오늘날 한방에서도 구기자는 환자의 체질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구기자는 차로 끓여 음료수로서 마시거나 구기주(枸杞酒)를 만들기도 하며 구기닭죽을 만들어 먹으면 여름을 나는데 좋다고 한다.

‘구(枸)’는 탕자나무 가지와 ‘기(杞)’는 버들고리 줄기와 비슷하다는데서 연유

“구(枸)”는 줄기의 가시가 탕자나무의 가지와 같다는 데서 연유한 것이며, “기(杞)”는 줄기가 버들고리와 비슷하다는 데서 따와 “구기(枸杞)”라고 하였다고 한다.

구기자(枸杞子, Lycil Fructus)는 열매를 건조한 것이며, 구기엽(枸杞葉, Lycii Folium)은 잎을 말린 것이고, 지골피(地骨皮, Lycii Cortex Radicis)는 근피를 건조한 생약인데 예로부터 이 약을 오래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추위와 더위를 타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부가

다. 워낙 고령이므로 벌써 돌아가실 나이도 지났고 자식인 자신도 고회를 넘겼으니 솔직히 어머니가 부담스럽다고 하였다.

친구는 “어디 한번 같이 가 보세”하여, 두사람은 오솔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 드디어 그집에 당도하였다. 의원은 올라오느라 덥고 목도 말라 “물 좀 한사발 주게나”하니 주인인 친구는 의원을 집엿 웅달샘으로 데려가 바가지로 물을 떠 주었다. 목마른 김에 정신없이 물을 마시고 바가지를 놓던 의원은 웅달샘옆에 자라는 커다란 구기자나무를

중앙 회원 가입 안내

국산한약재는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소중한 전통의약입니다.

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회원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상

농촌지도기관, 영농법인, 작목반, 생약분야단체, 학계, 제약 및 식품회사, 우리생약에 관해 관심있는 모든분

혜택

- 1) 생약재배에 관한 기술지도
- 2) 생약계약재배 및 수매알선
- 3) 입산채취증 발급
- 4) 생약의 수출입 알선
- 5) 생약분야 정보제공
- 6) 한국생약보(시세표 포함) 제공

구비서류

- 1) 가입서 양식(본부에 비치)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증명사진 2매
- 4) 회비:
 - 개인: 월 3,000원×12개월 = 36,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46,000원
 - 단체: 월 10,000원×12개월 = 120,000원
 - 가입비 10,000원 합계 130,000원

가입문의 : 협회사무국 전화(02) 967-8133